상간설되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出州北上之村	배포일자	2021년 12월 6일(월) 총 4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도시경관건축과	담당자	<ul><li> 담 당 방용섭</li><li> 주무관 김동찬</li></ul>	<b>☎</b> 440−472 <b>☎</b> 440−472	1/ 010-727 2/ 010-905	
사진	□ 없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	시 보도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 화수부두, '빛의 항구'로 재탄생 기대

- 화수부두 주변 야간경관 연출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 부두주변 환경 새롭게 리뉴얼하는 효과와 동구 지역발전의 전환점 될 것 -

인천광역시는 12월 6일 화수부두 주변 지역의 어두운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활기찬 부두로 거듭나기 위한 "빛의 항구" 화수부두 주변 연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화수부두는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곳으로서 70년대까지 수도권 제일의 새우 젓 전문 시장이었다. 연평, 백령 근해에서 잡은 생선의 집하 부두로 유명했던 오랜 역사를 간직한 어항이었으나, 최근에는 상권 이동과 도심외곽 위주의 개발에 밀려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작은 부두이기도 하다.

시는 화수부두 뿐만 아니라 넓게는 동구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빛의 항구"화수부두 주변 야 간경관 연출 사업은 슬럼화 되고 있는 부두주변의 환경을 새롭게 리

뉴얼(renewal) 하는 효과와 함께 동구 지역발전의 계기 및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용역은 라이팅 쇼(Lighting show), 빔 프로젝션 매핑(Beam projection mapping), 조명사인(Sign) 및 포토 존(Photo zone)의 4가지 경관 컨텐츠로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레트로(Retro)한 분위기의 야간경관 연출사업이며, 어두운 화수부두 주변 환경을 밝게 개선함으로 활기찼던 과거의 영화를 되찾겠다는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용역은 지난 11월 23일 착수했고 2022년 3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12월 2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조속한 사업 완료를 위해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정감어리고 옛 정취를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는 화수부두는 또 하나의 인천의 명물로서 재탄생할 것으로 야간경관 연출 용역을 통해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활기찬 부두환경 조성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견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1. 야간경관 라이팅 쇼 예시 사진

2. "빛의 항구" 화수부두 주변 야간경관 연출 용역 개요

# 〈 야간경관 라이팅 쇼 예시 사진 〉



#### 【참고자료】

# "빛의 항구" 화수부두 주변 야간경관 연출 용역

동구 화수부두 주변을 야간경관 컨텐츠 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볼 거리와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 주변 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 화에 기여하기 위한 야간경관 연출 사업

#### □ 용역개요

- **(용역기간)** 2021.11.23. ~ 2022. 02. 22(3개월)
- o (사 업 비) 484,450천원
- o (용 역 사) ㈜누리플랜, ㈜팔레트온
- o (사업내용) 라이팅 쇼, 빔프로젝션 매핑, 사인조명 및 포토존 설치

### □ 그 동안의 추진사항

- ㅇ 2021. 08. 30.: 사업계획 수립
- ㅇ 2021. 10. 01.: 용역입찰 재공고(조달청 10. 01. ~ 10. 13)
- ㅇ 2021. 10. 18.: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ㅇ 2021. 11. 23.: 계약체결 및 용역착수
- o 2021. 12. 02.: 주민설명회 개최(화수부두 경로당)

## □ 향후일정

- ㅇ 2021. 12. 6.: 착수보고회 개최(14:00시 공감회의실)
- o 2021. 12.: 용역중지(경관심의 기간 동안)
- ㅇ 2021. 12.: 경관심의위원회 개최
- o 2022. 03.: 현장시연회 개최 및 용역 준공 예정